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92호 【부제 제 25801호】 주제 106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훌륭히 전변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안정수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인 김용수동지, 김여정동지, 조용원동지, 박명순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김수길동지께서 비롯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16년 1월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을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전면 시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펼쳐나선 해당 부문



과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 건설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투쟁을 벌려 지난 7월까지 연건축 면적 2만 4,700여㎡의 건축공사와

169종에 1,844대의 설비현대화공사를 끝냄으로써 공장을 각종 운동신발과 종목별 전문체육신발들을 연간 백수십만켤레 생산하는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신발생산

기지로 전면시키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먼저 공장구내에 정중히 모신 모자이크벽화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한 신발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와 공장에 새겨져있는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자욱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건립한 현지지도표식비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뵈옵는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질 좋고 맵시있는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류원신발공장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에 떠받들려워 1988년 11월 우리 나라의 첫 수출 운동신발생산기지로서 창립된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우리 당의 손길아래 류원신발공장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어떤 성과와 경험을 이룩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도록 생동 하면서도 교양적의가 있게 꾸렸다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속에서 이것을 통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신속있게 벌려 그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맡은 일을 더 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통합생산지령실, 재단직장, 재봉직장,

제화직장, 사출직장, 과학기술보급실, 도안실, 제품전시실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 및 생산절형,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 하시였다.

공장의 모든 생산 및 운영설비들을 실시간으로 감시조종할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해놓음으로써 생산과 품질의 최량화를 실현할수 있게 하였는데 잘하였다고 치하시였다.

주제화, 현대화, 과학화의 가치를 높이고 제화효율을 비롯하여 87종에 1,600여대의 현대적인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설치함으로써 국산화비율을 87%이상으로 보장하였는데 대단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로액을 극력 절약할수 있게 원료배합, 제단, 사출, 제화, 재봉공정들의 자동화, 효률화를 실현하였으며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로동조건과 생산환경을 보장해줄수 있도록 생산현장에 성능이 높은 승배풍기를 설치하여 유해가스를 완전히 없애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초립제탄산가스에 의한 염화비닐발포 기술을 도입하여 가벼우면서도 질이 좋은 신발창을 생산할수 있게 하였으며 9종에 130여조의 운동신발창형타와

잘장형잡이형타를 제작하고 현대적인 레이저제단기, 감피제단기, 재본인쇄기 등을 새로 설치하여 운동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제품검사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반부구부림시험기, 충격시험기, 추구화류성시험기 등 현대적인 검측설비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설치해놓았는데 우리 사람들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신발생산의 선행공정이 도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공장을 개건하면서 도안실을 잘 꾸려놓았는데 전문가들은 물론

종업원들속에서 도안장작현상용모도 활발히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짜고들어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시야를 넓혀줌으로써 생산에서 걸린 문제는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공장에서 운영하는 상점에 레이저3차원발측정기를 설치해놓고 구매자들의 발을 재어보고 그에 맞게 신발을 주문생산까지 할수 있게 하였는데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3 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옥상에 설치한 400kW능력의 태양발전설비들의 가동실태를 료해하시고 신발생산과 냉난방, 식당운영, 조영 등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보장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으며 종업원들이 충분한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도록 체육관, 수영장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도 손색없이 꾸려놓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운동신발들의

가치수가 대단히 많고 맵시있으며 질이 좋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신발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만든 운동신발, 체육신발을 신고 기뻐할 인민들과 아이들, 체육인들을 생각하니 정말 흐뭇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류원신발공장의 제품들을 김정숙평양 방직공장과 평성합성가죽공장에서 생산한 그물천과 합성가죽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의것을 가지고 만든 신발들을 보니 정말 힘이 나고 기분이 좋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류

원신발공장이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전변된데 맞게 신발들을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으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류원신발공장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며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인민으로 흠집을 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장, 인민생활상을 위한 투쟁에서 마련된 또 하나의 재

부라고 하시면서 공장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장조물로 일떠세운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류원신발공장을 정말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높이 울리고있는 생산증상의 동음소리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지역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가는 천만군민의 힘찬 전진가로 들린다며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류원신발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를

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항상 명심하고 인민들에게 질종고 맵시있는 운동신발들을 인거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류원신발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현대적으로 개건된 공장에 찾아오시여 뜨거운 인민사랑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할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천주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에서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각하

각하
조선로동당상건 72축을 경축하고있는 이 시각 적도기네민 주당 전체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적도기네민 주당 상건자, 위원장인 오미양 느게마 브라쾡고각하의 이름으로 각하와 그리고 각하를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가장 열렬하고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들은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명도하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경사스러운 창건기념일이 성대히 정속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적도기네민 주당 총서서
헤로니모 오싸 오싸 예프로
2017년 10월 3일 말라보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

경애하는 동지
저는 조선로동당상건 72축에 즈음하여 메히꼬로동당 전체 당원들과 지지자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와 형제적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현명한 명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굴복시켜보려는 미제국주의의 발광적인 도발행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저희들의 전적인 지지와 면대성을 재확인하면서 당신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도 아나야 구비에레스
2017년 10월 5일 메히꼬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각하

나는 당신께 안부의 인사를 전하면서 조선인민의 항도자이신 위대한 로동당이 창건되어 발진하여온 력사적인 72축에 즈음하여 당신께와 귀국의 근로하는 인민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몽골인민혁명당과 조선로동당사이의 친선협조가 앞으로 더욱 심화되어 공고하고 폭넓은 협조가 진행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원히 번영발전할것입니다.
몽골인민혁명당 위원장
느. 엔호바야르
2017년 10월 9일 울란바타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부리사장과 리사가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들의 당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적여져있었다.

본사기자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3차 확대회의의 진행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제3차 확대회의가 18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 삼가 올립니다

우리들은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현명한 명도밑에 조선인민이 앞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조선인민도에 반드시 통일된 강국을 일떠세울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 인류역사는 수많은 정치가들과 명인들을 기록하고있지만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령도자각하와 같이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사는 위인을 알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령도자각하의 불멸의 혁명사상은 태양의 빛이 되어 정의와 진리, 자부심을 지향하는 세계진보적인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세계에 유일무이한 수평형경제기금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의 사업정령이 충취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문제들이 도의되었습니다.

희의참가자들은 질세라인민들의 존엄을 모신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를 세계적인 기금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 데에 전적으로 지지찬동하였으며 기금사업을 보다 활성화해나갈 결의들을 다지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
우리들은 이번 귀국방문을 통하여 미국의 제재책동에 끄떡없이 승승장구하는 조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선반도정세를 놓고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시하고있지만 조선인민은 승리에 대한 신념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조선의 현안을 목격하면서 자기 수명, 자기 명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조선인민의 힘을 당함하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습니다.

조선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편향세력의 압력에 대처하여 핵강국, 군사대국으로 솟구쳐올랐습니다.

조선로동당을 수평의 사상세계와 명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선대수령들의 당건설업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세계적의사들의 대조선 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다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철세위인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밑에 력사의 존엄한 족공을 과감히 헤쳐며 승리와 영광만을 이로세게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상은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의 직관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적 정서가 차넘치는 우리 생활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사랑하는 교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관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중시하시고 여기에 힘을 쏟으시여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세상에 빛내주셨을 것입니다.》

개성시는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으로뿐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역사유적이 많은 고적의 도시이다.

얼마전 우리는 당의 문화유적 보존정책에 의하여 옛 모습을 보존하고있는 민족문화유산을 위대하게 위해 개성시에서의 기행에 나섰다.

우리의 취재는 왕건왕릉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개성시 왕건왕릉유적관리소 강사 박성태동무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송도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0여년전에 이곳에 배치되어 온 그는 참관자로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한다. 과연 구수하면서도 화려적인 그의 강의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왕건은 우리 나라의 첫 통일 국가인 고려를 세운 태조왕이다. 오랜 세월 력사의 이기속에 묻혀 있던 왕건의 공적을 되새겨주는것은 우리 수평년과 장군님이시다. 아버지수평년의 교시에 따라 훌륭히 개진된 왕건왕릉은 보기에도 우리 민족사에 강대했던 고려의 계승국인 고려의 태조왕릉을 기념해 세워졌다. 박성태동무는 많은 외

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들이 감상속에 담긴 감도 읽어보았다.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를 세운 왕건의 공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평년들과 강사의 친절을 느끼고싶다는 해외동포며 유구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있는 조선민족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한 외국인...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귀중히 여기시며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어주시길 철세위인들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우리는 말할음을 옮겼다.

개성시내에 돌아선 우리의 눈앞에 력사의 이기같은 남대문이여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인 전통적인 조선집들이 언뜻언뜻 보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성민속촌에 여장을 풀었다. 지금은 온 나라 각지에서 서로서로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흥성이지만 옛날에는 향반들이 쓰고살던 이 집으로 수많은 인사장이 군데군데 나뉘어져 있었다.

집들의 기둥도 옛 모습 그대로이고 방안에 놓인 병풍이며 상호지, 바투와 벽돌도 우리 선조들이 쓰던 그대로인 이곳에도 그 향설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세실한 가르치심을 주신 우리 수평년과 장군님의 거룩한 렋도사가기 깃들여있었다.

이들 최승행동무로부터 통일반선 민족유산보호위원회가 진행된다 말을 들은 우리는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민족유산

풍광이를 보게 되는 기회도 놓치지 않고 사들여 통일관으로 취재길을 이어갔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로리경연에서 여러번 1등의 영예를 지닌 김정일동무가 많은 인상적파와 도라지정파, 우방장조영회동무가 많은 야담이며 경단, 보물갑지 등 많은 민족로리들로이제는 음식풍광이를 보게만 해도 민족의 정취가 풍겼다.

우리는 이곳에서 20여년동안이나 민족유산을 만들어오고 있다는 로리사 김정일동무로 만날수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게 실던 12월 반상기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반상기를 적시에 맞게 밭갈 하나를 차리게 갖춘 한방의 그것이라 한 뜻이다. 고려이전시기에 나온것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귀한 손바늘이나 명질남에 차려먹곤 하였다.

밤, 곱, 김치, 양념장 외에 차려지는 로리가죽에 따라 3월, 5월, 7월 등으로 부른다. 여기에 또 잊을만 한 우리 민족의 풍속을 찾아주시고 잊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다고 김정일동무는 뜨겁게 말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주방장이 김이 물론 나는 인상담이 들어왔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조선의 명산물인 인삼을 넣이 만든 담임이서 류담인 인삼향기가 짙게 풍겼다.

《개성을 찾는 관광객들중이 유명한 인삼담임을 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것이다

다. 맛이 좋을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주방장 조영회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뛰어나게도 개성에서 인삼이 유명하다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듣고보니 얼마전 텔레비전에 소개되었던 《인삼향사》를 다시보고싶은 충동도 가슴속에 차올랐다.

우리는 농업연구원 인삼연구소로 취재길을 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낱익은 《인삼향사》인 73살의 김현우로인을 만났다. 개성토배기인 그는 오래동안 인삼에 종사하였는데 얼마전 개성에서 인삼의 기원과 력사에 관한 책을 썼다고 한다. 한성 인삼을 다루며 인삼에 대한 연구를 해온 그의 인삼사랑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인삼중에서도 개성인삼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다고 한다.

사람의 몸매 아주 좋은 인삼을 가지고 인삼차, 인삼강장, 인삼향약, 인삼향기 등 여러가지 인삼제품을 많이 만들수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인기가 대단한 건강식품이라고 했다. 뛰어나게 하려는 인삼향기 또한 인삼을 넣이 만든 담임이서 류담인 인삼향기가 짙게 풍겼다.

《개성을 찾는 관광객들중이 유명한 인삼담임을 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것이다

다. 맛이 좋을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주방장 조영회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뛰어나게도 개성에서 인삼이 유명하다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듣고보니 얼마전 텔레비전에 소개되었던 《인삼향사》를 다시보고싶은 충동도 가슴속에 차올랐다.

우리는 농업연구원 인삼연구소로 취재길을 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낱익은 《인삼향사》인 73살의 김현우로인을 만났다. 개성토배기인 그는 오래동안 인삼에 종사하였는데 얼마전 개성에서 인삼의 기원과 력사에 관한 책을 썼다고 한다. 한성 인삼을 다루며 인삼에 대한 연구를 해온 그의 인삼사랑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인삼중에서도 개성인삼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다고 한다.

사람의 몸매 아주 좋은 인삼을 가지고 인삼차, 인삼강장, 인삼향약, 인삼향기 등 여러가지 인삼제품을 많이 만들수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인기가 대단한 건강식품이라고 했다. 뛰어나게 하려는 인삼향기 또한 인삼을 넣이 만든 담임이서 류담인 인삼향기가 짙게 풍겼다.

《개성을 찾는 관광객들중이 유명한 인삼담임을 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것이다

다. 맛이 좋을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주방장 조영회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뛰어나게도 개성에서 인삼이 유명하다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듣고보니 얼마전 텔레비전에 소개되었던 《인삼향사》를 다시보고싶은 충동도 가슴속에 차올랐다.

우리는 농업연구원 인삼연구소로 취재길을 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낱익은 《인삼향사》인 73살의 김현우로인을 만났다. 개성토배기인 그는 오래동안 인삼에 종사하였는데 얼마전 개성에서 인삼의 기원과 력사에 관한 책을 썼다고 한다. 한성 인삼을 다루며 인삼에 대한 연구를 해온 그의 인삼사랑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인삼중에서도 개성인삼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다고 한다.

사람의 몸매 아주 좋은 인삼을 가지고 인삼차, 인삼강장, 인삼향약, 인삼향기 등 여러가지 인삼제품을 많이 만들수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인기가 대단한 건강식품이라고 했다. 뛰어나게 하려는 인삼향기 또한 인삼을 넣이 만든 담임이서 류담인 인삼향기가 짙게 풍겼다.

《개성을 찾는 관광객들중이 유명한 인삼담임을 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것이다

자강도민족유산보호관리소 강계서관리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역사문화유적을 잘 보존하는것은 나라의 민족문화유산을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강계서관리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는 력사유적이 많다. 선조들의 습기와 재능이 비껴있는 그 하나하나의 력사유적들은 그대로 사립들에게 매국심과 민족적공기를 안겨주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이다. 하기에 자강도민족유산보호관리소 강계서관리원들은 매일 관리정형에 힘쓰고 있다.

이들에게는 매일 관리정형을 기록하곤 하는 관리일지기가 있다.

그 일지에 적혀지는 글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들은 선뜻 펜을 들지 못한다.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언제 나 깊은 관심을 품어는 당의 의도에 맞게 일하였는가?

이 물음에 멋뜻하게 대답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나라애는 이런 일도 있었다.

지난 6월 중순 강계시 남산에 자리잡고있는 거연정에 대한 보수작업이 진행될 때였다. 막상 막아보려는 제끼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사계맞춤으로 맞출려면 목 조부분을 하나하나 떼쳐내고 남은것들을 새겨서 교체하는 보수작업은 높은 목공기술과 섬세한 일손을 요구하였다.

보다 어려운것은 산기슭에서부터 산꼭대기에 있는 거연정까지 모래바람, 폭설 등 많은 자연

관리일지에 비껴 애국의 마음

우리는 민족유산에 새겨진 아름다움을 무심히 보지 않았다. 그것은 무늬이기 전에 민족에 정신을 고여가는 이곳 풍류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속에서 피어나 꽃이었다.

그러니 저 민족유산이 그러도 밝고 아름답게 느껴지는것은 단 그에 그 우아함에 있는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민족성을 더욱 빛내어가는 것은 관음의 손길과 애국의 마음이다. 그리고 애국의 마음은 애국의 손길과 애국의 마음이다. 그리고 애국의 마음은 애국의 손길과 애국의 마음이다.

글 본사기자 신 현
사진 본사기자 김 진 명

미술가 정 의 행복

잔향수도 정 의 행복을 위하여 마련하였으니 그 행복의 향기를 느껴 보시라

《우리의 행복은 귀중한 여기고 빛내여주시는 여기에 조선민족정신유적이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지키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철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얼마전 정 의의 자랑 모란봉에 온 우리의 발걸음은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방불하게 그려가는 한 중년의 미술가 앞에서 멈추었다.

그는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을 비롯한 많은 국보적작품을 창작한 김일성장군기념사업회 2중로혁명영웅인민애국가정면동지의 아들 정동혁동무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반에서 창작활동을 벌이고있는 정동혁동무는 휴식 시간이면 모란봉에 장식과 화를 그리고 싶어하는 생화로 되었고 지렁이가 이기하였다.

그의 일에서는 16살 난 아들이 아버지처럼 훌륭한 미술가가 될 꿈을 친히 소호음과에 여 님이었다.

정 의의 가정은 3대가 미술과 인연을 맺고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고있는셈이었다.

조선화창작반 정동혁동무의 생활에서

《우리의 행복은 귀중한 여기고 빛내여주시는 여기에 조선민족정신유적이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지키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철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얼마전 정 의의 자랑 모란봉에 온 우리의 발걸음은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방불하게 그려가는 한 중년의 미술가 앞에서 멈추었다.

그는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을 비롯한 많은 국보적작품을 창작한 김일성장군기념사업회 2중로혁명영웅인민애국가정면동지의 아들 정동혁동무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반에서 창작활동을 벌이고있는 정동혁동무는 휴식 시간이면 모란봉에 장식과 화를 그리고 싶어하는 생화로 되었고 지렁이가 이기하였다.

그의 일에서는 16살 난 아들이 아버지처럼 훌륭한 미술가가 될 꿈을 친히 소호음과에 여 님이었다.

정 의의 가정은 3대가 미술과 인연을 맺고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고있는셈이었다.

정동혁동무의 말이다.

본사기자 리 건 밀

우리의것이 제일이라는 긍지를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예술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는데는 힘써주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정 의의 행복을 위하여 마련하였으니 그 행복의 향기를 느껴 보시라

《우리의 행복은 귀중한 여기고 빛내여주시는 여기에 조선민족정신유적이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지키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철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얼마전 정 의의 자랑 모란봉에 온 우리의 발걸음은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방불하게 그려가는 한 중년의 미술가 앞에서 멈추었다.

그는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을 비롯한 많은 국보적작품을 창작한 김일성장군기념사업회 2중로혁명영웅인민애국가정면동지의 아들 정동혁동무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반에서 창작활동을 벌이고있는 정동혁동무는 휴식 시간이면 모란봉에 장식과 화를 그리고 싶어하는 생화로 되었고 지렁이가 이기하였다.

그의 일에서는 16살 난 아들이 아버지처럼 훌륭한 미술가가 될 꿈을 친히 소호음과에 여 님이었다.

정 의의 가정은 3대가 미술과 인연을 맺고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고있는셈이었다.

정동혁동무의 말이다.

본사기자 리 건 밀

조선예련합상사 민족의상제작단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예술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는데는 힘써주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정 의의 행복을 위하여 마련하였으니 그 행복의 향기를 느껴 보시라

《우리의 행복은 귀중한 여기고 빛내여주시는 여기에 조선민족정신유적이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지키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철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얼마전 정 의의 자랑 모란봉에 온 우리의 발걸음은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방불하게 그려가는 한 중년의 미술가 앞에서 멈추었다.

그는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을 비롯한 많은 국보적작품을 창작한 김일성장군기념사업회 2중로혁명영웅인민애국가정면동지의 아들 정동혁동무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반에서 창작활동을 벌이고있는 정동혁동무는 휴식 시간이면 모란봉에 장식과 화를 그리고 싶어하는 생화로 되었고 지렁이가 이기하였다.

그의 일에서는 16살 난 아들이 아버지처럼 훌륭한 미술가가 될 꿈을 친히 소호음과에 여 님이었다.

정 의의 가정은 3대가 미술과 인연을 맺고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고있는셈이었다.

정동혁동무의 말이다.

본사기자 리 건 밀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그날의 고고성에서 린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살인귀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갑판 항구에서 대항을 순간도 잊지 않아야 하며 늘들에게 친 백배로 복수할 굳은 각오를 가지라 합니다.》

공적의교무대인 유엔총회에서 우리 공화국의 존재자세를 부각하고 《완전과파》하였다고 지껄인 늑대미치광이의 친인공노한 망발은 날이 갈수록 현란공인의 가슴가슴을 뚫어놓는 미제살인귀들에 대한 지극한 분노와 증오의 격앙으로 더욱 세차게 끓어오르면서 하고있다.

《완전과파》이것은 결코 정신병자의 경박한 실언이 아니다. 사람을 죽이고 남의 나라를 파괴하고 대머리로 만드는것을 쾌락으로 여기는 미제살인귀들의 본성적기질을 날마다 드러낸 망발이다. 또한 역사를 잊어오며 제정해진 죄를 즐기는 살인귀의 인연이다. 이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미제의 죄악의 력사가 날마다 고발되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격적인 일시적후퇴시기 함경남도 함

부남녀녀인은 입귀로 흘러내리는 퍼를 담으며 있는 힘을 다해 쳤다.

《이 악귀같은 놈들이 내놈들을 복수할 날이 복 온다.》

그러자 장교는 《우리가 《미국식해신장》을 제출했다.》라고 고야데며 그를 쓰러뜨리고 구두날로 힘껏 내리쳤다.

다음 날 놈들은 함부남녀녀인과 갇힌애기 그리고 갇힌애기 한 애기 두애기를 모두 산인력으로 끌고갔다. 그리고는 목숨이 아까운놈들을 데리고 가는 길에 장교는 안도감으로 오는 어머니의 웃음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방죽에 들려오는 애기울음소리를 듣고 미제살인귀들이 달려들었던것이다. 놈들은 함부남녀녀녀를 장교놈에게 또다시 끌고 갔다.

미국놈들은 1895년 윤산 땅에 발을 들여놓는 데로부터 조선로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있는 인간으로서의 상상도 하지 못할 야수적만행도 거둬먹어 감행하였다.

그때 광산지구에 《자해병원》이라는것이 있었다.

이 병원의 주인은 파피라는 미국놈이었다.

해부학박사가 되겠다고 뇌카리며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자해병원》에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이 병원을 파피라는 미국놈이었다. 해부학박사가 되겠다고 뇌카리며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자해병원》에 데리고 갔다.

《자해병원》은 살인병원이었다

미국놈들은 1895년 윤산 땅에 발을 들여놓는 데로부터 조선로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있는 인간으로서의 상상도 하지 못할 야수적만행도 거둬먹어 감행하였다.

그때 광산지구에 《자해병원》이라는것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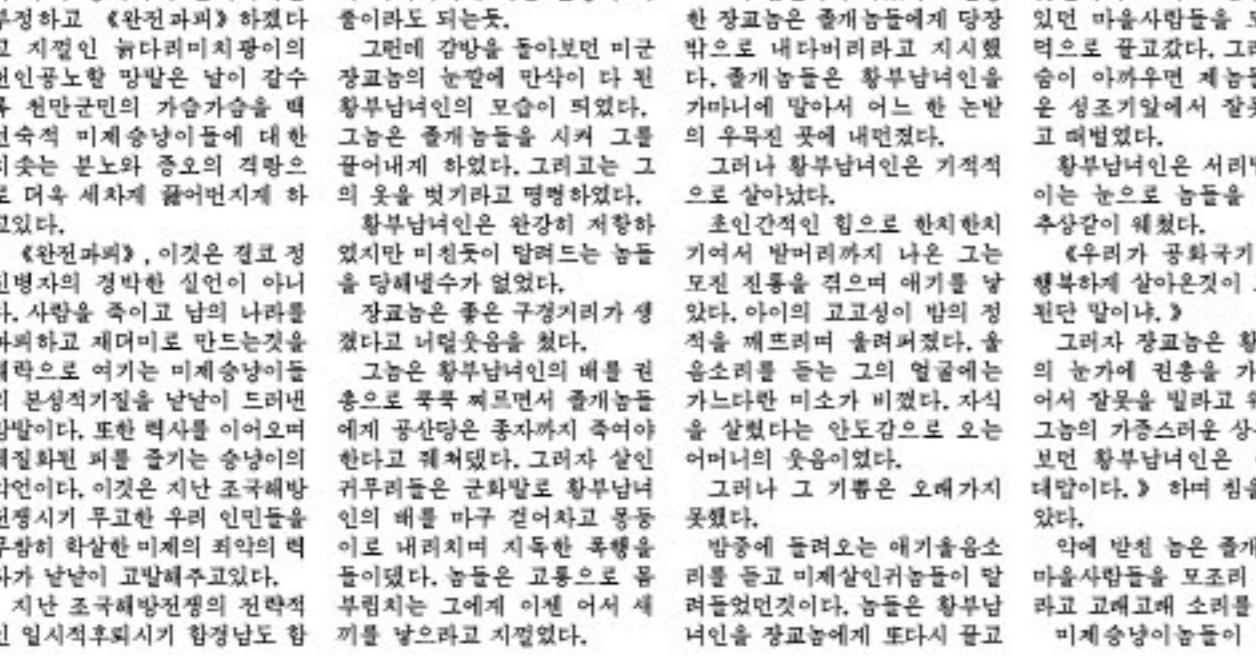
이 병원의 주인은 파피라는 미국놈이었다.

해부학박사가 되겠다고 뇌카리며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자해병원》에 데리고 갔다.

본사기자



조선예련합상사 민족의상제작단에서



백년속적 미제살인귀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불라는 결의에 넘쳐있다.



백년속적 미제살인귀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불라는 결의에 넘쳐있다.

